

전북도 산림자원 인정받아

국가문화자산 전국 30곳 중 8곳 지정... 올해 4곳 추가 신청

전북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매년 속속 지정 받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30개소 중 8개소가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4곳을 추가로 신청해 둔 상태이다.

이로써 전북도가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 및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연계한 무형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산림청이 2014년부터 산림과 관련돼 역사적 보존 가치가 큰 숲, 나무, 표석 등 유·무형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보전을 위해 지정하기 시작한 국가산림문화자산에 2015년 3곳, 2016년 3곳, 2017년 2곳 등 모두 8개소가 지정 고시됐다.

금강 발원지인 뜰봉샘을 비롯해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 우리나라

관소리 8명창 가운데 1명인 권삼득이 수련했던 원주 위봉폭포, 부안의 풍류와 선비정신이 융합된 부안 서립공원과 임정유애비, 남원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 남원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남원 남계 담피 비보림이 현재 지정된 도내 8개 국가산림문화자산이다.

이처럼 도내 산림자원은 생태적·경관적 보존가치 뿐만 아니라 역사적, 학술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산으로서 교육·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은 곳들이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올해에도 일제 수탈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는 남원 길곡리 송탄유 채취 피해목을 비롯해 진안 메타세쿼이아길, 진안 하초 마을숲, 임진왜란 당시의 이야기 등이 전승해 내려오는 장수 대포바위 등 4곳을 발굴해 산림청에 문화자산으로 신청, 현재 지정 예정 공고돼 있는 상태다.

또한 도내의 아름다운 산림문화자산을 온전히 후세에게 물려주고 지역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자산발굴에 나서 올 연내에는 타 시·도에 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들여 작년까지 지정된 6개소(개소당 2천만원)에 안내관 설치 등 1차 정비사업을 모두 마쳤다.

최재용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곳곳에 산재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들이 생태관광지와 지질공원 등 다양한 자연유산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시너지를 발휘해 전북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학이시습의 날

4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7월중 학이시습의 날 행사에 송하진 도지사(왼쪽)와 명사특강에 초대된 송인영 교수(강의주제-시장이 흐르는 세계여행)가 공연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지엠, 6월 실적 '유지' 웨보레 신제품, 견인차 역할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가 6월 한 달간 총 4만3,692대(안정차 기준-내수 1만1,455대, 수출 32,237대)를 판매했다.

한국지엠의 6월 내수판매는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가 집중되었던 전년 대비 36.6% 감소했으나 경차 스파크, 준중형차 크루즈, 중형차 말리부, 소형 SUV 트랙스 등 주력 신제품이 상승세를 더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기술인 중형세단 시장의 리더 웨보레 말리부는 상반기 동안 한국지엠 전 제품 통틀어 최대 상승세를 달성했다. 6월 2,879대가 판매된 말리부는 상반기 총 19,698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6.8% 대폭 증가했다.

웨보레 크루즈는 6월 한 달간 1,434대가 판매되며 지난해 대비 54.2% 증가했다. 크루즈는 우수한 주행성능과 상품성에 더해 대규모 시승 캠페인 등 공격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 시장 반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지엠 영업·A/S 마케팅부문 데일 설리번(Dale Sullivan) 부사장은 "한국지엠은 상반기 동안 주력 제품의 시장 반응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펼쳐 견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도 경쟁력 있는 제품성능을 바탕으로 신선하고 활발한 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의 상반기 누적 판매 실적은 총 27만8,998대(내수 72,708대, 수출 20만6,290대, CKD 제외)를 기록했다.

/군산=장현기자

“인구절벽 막아라”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도 기획조정실장 참석... 혁신도시 활성화 등 해결방안 모색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재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국토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형미 국토부 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국토국토균형발전과 4차산업혁명(세션 1), 도시재생과 주거안정(세션 2)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고 혁신도시 시즌2, 낙후지역 활성화, 지역간 연계협력 등에 대한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류승환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혁신도시의 수준 높은 정주여건과 이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의 자립성장을 위한 선

도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은 도시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스마트시티 모델을 확산할 것을 제안하는 등 새정부의 국토·도시 정책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토론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낙후지역, 인구급감지역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자립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구도심, 쇠퇴도시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진정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전북도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대, 6일~8일 전국해양문화 학자대회 개최

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박장근)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군산대학교 황룡문화관에서 전국의 해양문화학자 23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개최한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2009년 목포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삼척, 여수, 경주, 당진 등지에서 매년 대회를 개최하며 국내 대표적인 도서해양 종합 학술회로 자리잡아왔다.

8회 대회는 "동북아 해양문물 교류의 허브, 새만금"을 주제로, 서해안의 중심도인 군산에서 개최된다. 군산대 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새만금개발

청,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라북도과 군산시, 군산대학교, 한국해양재단에서 후원한다.

참가자 전원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는 열린 학술대회(Open Forum)로, 해양문화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학술적 난장을 공유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모여 집중적인 논의를 한다. 대회 주제는 "동북아 해양문물 교류의 허브, 새만금"이다. 첫날에는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둘째 날에는 230여명이 참가하는 분과회의 및 융합토론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금강유역 및 새만금, 고군산도 일대 공동토론이 있다. /군산=장현 기자

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북한이 4일 오전 9시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 미사일을 1발을 발사해 930여km를 비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노재현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오전 9시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참은 이 탄도 미사일의 비행거리에 대해서 "비행거리는 930여km로써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민방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으며,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소집을 지시했다. 정 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NSC 상임위가 소집된 것은 지난해 5월29일 이후 36일만이다.

아울러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2,500km를 훨씬 넘어선 고도까지 치솟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뉴스

김일재, 현장행정 동분서주

정읍 봉사방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모색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사진)는 4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도내 우수 마을기업인 정읍 '콩사람' 마을기업을 방문했다.

'콩사람'은 2013년 마을기업 지정 이후 지역 내에서 생산 되는 귀리와 현미 등의 원료 농산물을 대부분 매입하여 곡물가루, 통곡식, 떡 등의 제품을 판매, 작년 10억 여 원의 매출과 4명의 상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는 등 농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우수 마을기업이다.

'콩사람'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꾸준한 홍보를 통해 페이스북·블로그 등 SNS와 '온맘으로(http://www.kongdubu.co.kr)' 라는 자체 쇼핑몰에 6천여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내 9개 마을기업 및 지역 내 10개

가공업체 제품을 쇼핑몰에 입점시켜 함께 판매하고 있다.

특히 작년 전북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옴' 기업으로 선정 돼 떡 생산 시설 확충과 작업장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작년매출이 53.2%증가했고 현재는 귀리를 이용한 오트밀과 볶음곡식 등의 상품 위생과 품질 향상을 위해 올 연말을 목표로 HACCP 인증을 준비 중이다.

콩마을의 성공은 '농업소득 정체 및 고령화 등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농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도의 핵심정책인 '보람받는 농민, 재갈 받는 농업, 사람사는 농촌' 삼라농정의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도 농업인들이 삼라농정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